##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6월 13일(금) 제 3111호

# 전북출신 인사, 이재명 정부 입각 촉각 곤두

#### 개각 임박 전북 출신 중용 관심 안규백 국방·정동영 통일 김윤덕 문체부장관 거론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에 입각하게될 전북 출신 인사는 누구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국 민추천제'를 도입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나, 대북 및 외교안보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이미 장관 후보자 등이 내 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 는 인사는 통일부장관에 정동영 의원, 국방부장관에 안규백 의원이 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에는 김윤덕 사무총장 기용설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의 통일부장관 지명 배경엔 전 정부의 대북 강경 책으로 남북간의 소 통까지 완전히 단절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통일부장관으로 대북 관 계를 원만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 임의장으로 활동할 때 당시 사무차장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같이 '2005 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 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었다.

이 대통령도 '정동영-이종석'의 대북 외교라인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의원의 통일부 장관 임 명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안 의원의 국방부장관 기용설은 이 대 통령이 대선 기간 중 '민간출신의 국방 장관'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정부 수 립 이후 이날까지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출신이 맡아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격적인 인사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모두 군출신 출신 국방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 기용은 국가 가 아닌 사람에 충성하는 군 문화를 개 선하고 혁신할 인사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초선 때부터 이날 (5선)현 재까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그동안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 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온 민간 출신 국방분야 최 전문가이다.

이밖에 김 의원이 문화관광부 장관으 로 거론되는 배경은 김 의원이 이재명 시대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사무총장으 로 오랜기간 헌신해온 점과 전북도내에 서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는 점에서 전북 인사의 추가적인 입각은 명 정부에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인 민정수석 에 전북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대할 만한 실정이다.

물론 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북 인사들이 대거 이재

The JeonBuk Times

한편, 조만간 출범할 '내란특검, 김건 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후 보군에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북출신)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 /서울=김영묵기자



'햇보리 수확 한창' 농촌들녘

절기상 망종(6월5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도래하자 농촌의 들녁에서는 본격적인 햇보리 수확이 한창이다. 2024년 기준 전북의 보리 생산량은 약 3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7.9%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다. 보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당지수는 낮고 특히 β-글루칸이

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조절,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작물이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 아프리카 영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관객 만난다

####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개막 아프리카 15개국 15편 상영 서울·부산·전주 릴레이 개최

아프리카 15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15편이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상영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간 문화교류의 장인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가 12일부 터 15일까지 4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

전주시는 12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 관에서 주한 튀니지 대사와 한·아프리 카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전주 개 막식을 가졌다.

한·아프리카재단과 부산 영화의전당,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공동 주최하 고,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에서 후원하는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 울과 부산, 전주 등 국내 3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된다. 이날 전주에서는 개 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4일간 선보 인다.

었던 가나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 화국,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수단, 케 냐,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우수 한 작품 15편이 상영된다.

영화제 개막작은 튀니지의 로트리 아 슈르(Lotfi Achour) 감독이 지난해 제작 한 '붉은 아이들의 길'(Red Path)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 는 "독립영화, 대안영화의 성지 전주에 이번 영화제에는 평소 자주 볼 수 없 서 아프리카영화제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프리카영화제가 전 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교류의 장 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현대차 전주공장 ESG 실천 앞장

덕유산 멸종위기종 보호 3200만원 기금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 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 물 서식지 보전사업을 위해 사회공헌기 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 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 환경청,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굿네이 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 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기금은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자 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서 식지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멸종 위기야생생물 전시회 운영 지원에 역점 을 둘 예정이다.

또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 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야 생생물 I 급인 광릉요강꽃과 반달가슴 곰을 모델로 가방걸이 기념품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중점을 두고 있는 ESG 환경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번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사업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갈수록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야생생물들 중 광릉요강꽃 등 덕 유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잘 보전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3년째 연 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인류 공통의 당면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 해 당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버스와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생산에 나서는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 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 전북도, 바이오산업 세계화 시동

#### 이탈리아 포르투갈 석학 전북 방문 기술협력 논의

전북자치도가 12일 세계적 바이오 연 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기관 석학들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이오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

(University of Trento)와 포르투갈 미뉴 가 있다. 대학교(University of Minho)를 대표하 는 석학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진행됐다. 전북도에서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북을 찾은 클라우디오 밀리아 레시(Claudio Migliaresi) 교수는 트렌토 대학교 BIOtech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생체재료·조직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루이 L. 레이스(Rui L. Reis) 교수는 포 르투갈 미뉴대학교의 I3B's 연구그룹을 이끄는 재생의학 분야 석학으로 생분해 성·생체모사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 다.

이들은 전북자치도와의 간담회를 시 어, 전북대 고분자소재융합연구센터 방 과 함께 '첨단바이오 육성 글로벌 협력 문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인 Pre-R&D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및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첨단 바 협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로, EU Horizon Europe과 같은 국제 공 동연구과제에 전북의 연구기관이 함께

> 특히 차세대 바이오소재 기술을 중심 으로 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 화되며, 전북 바이오산업 해외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시 도와 트렌토대학교 BIOtech 연 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구센터, 미뉴대학교 I3B's 연구그룹, 전 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는 △첨단 바이오소재 기반 공동연구 추진 △국제 R&D 과제 연계 △연구인력 교류 및 기술이전 등에 대 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 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미래산업 기반 용하고, 상호 기술역량을 공유하며 연구 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현재 I3B's 연구그 

이 과제는 이달부터 8개월간 연골재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체결된 업무 생용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국제 협

전북자치도는 트렌토대 BIOtech 센 터와 미뉴대 3B's 그룹의 연구 노하우 이번 협력은 이탈리아 트렌토대학교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 와 전북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융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소재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단순 기술협력 수준을 넘 어,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중장기 산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계

>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유럽 석학들의 방문은 전북 바이 오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연구 생 태계에 진입하는 신호탄"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도 연구기관과 실 질적 협력을 확대해 첨단 바이오소재

/김영태 기자

#### 새 정부에 바란다

#### 조지훈 "과감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자"

#### 골목상권 부활 최우선

길었던 '마음의 겨울'이 끝났다. 폭 정의 끝을 보여준 광기 어린 비상계 엄도 대한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허물지 못했다.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선 국민의 저항과 분노는 탄핵과 파면으로 맺어 졌다. 제2의 광주는 없었다. 한강 작 가의 소회대로 "과거가 현재를 도왔 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그리고 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의 선택 역시 이재명이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바람

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 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아본 전주의 골목골목은 한낮의 더위가 무색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텅 빈 상가에 담긴 것은 소상공인의 눈물이었고 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회복과 성 다. 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한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다. 해 긴급 추경과 "취약 계층과 소상공



조지훈 부의장

장 잘 이해하고 선구적으로 실천한 야한다. 정치인이다. 지역 화폐로 골목을 살 린 경험과 성과가 '변방'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밀어 올렸다.

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 우연 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온다. 성남 과 경기의 골목을 살린 이재명이 이 렁한 거리는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가 번에는 대한민국의 골목을 살리라는 것이 절박하고 간절한 국민의 명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기민하고 분명하 어의심치 않는다. 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그 시작은 소 게 응답했다.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

플랫폼 경 인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소상공인과 정과 경기 자영업자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 침체로 신 다. 코로나 당시 입었던 막심한 피해 음하는 골 도 그대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목상권의 추경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지 부활에 민 만, 그래서 더욱 다층적이고 집중적 생 회복과 인 지원이 절실하다. 직접적인 지원 경제 성장 금 외에도 코로나 채무 탕감과 대출 · 지원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 민국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가용한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길을 가 모든 방안을 지금, 여기에 쏟아부어

내란 계엄의 밤부터 6·3 대선까지 달려온 6개월을 기억한다. 현란한 응 원봉과 재기발랄한 깃발은 신선한 감 골목골목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 동이었고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혹한의 거리를 밝힌 '키세스 시위대' 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예고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진짜 대한민국' 의 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또 믿

>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 윤수봉 도의원, 완주·전주 통합 강력 반대

#### "일방적 통합 추진 명분·실익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 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제419회 제1 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 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립과 반복, 상처 다. 들에 대한 도지사 의 책임과 사과 의 사를 물으면서 도 정질문을 시작했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 한 것이다. 윤수봉 의원은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

다.

통합 시도로 인해 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은 완주군민의 재정특례에 대해 조목조목 묻고 반박했

> 또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 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 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

/김영태 기자

## 김이재 도의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민원 대응 '문제'

#### 담당자 철저한 조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 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 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 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 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 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



김이재 도의원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

작 업체와의 갈등

하지 못한 사례를

가 진흥원 담당자

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디자인 제 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으로 사업을 완료 부스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철저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

> > /김영태 기자

## '전북형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 본격화

#### 13개 전문기관 연계 발달지연 아동 72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전북형 우리아이 발 달증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다 노출 등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평가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교사·전문기관이 함께 발달을 도 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울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지원 프로 그램이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아 동에게 1:1 맞춤형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 등 도내 13개 발달지원 전문기관과 협 로 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해 진행된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며, 현재까지 23명이 선정돼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장은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의 골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기관은 선정 아동에게 발달 영역 말했다.

사이 출생한 도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역이 으로, 올해 총 72명을 선정한다. 상반기 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상담 인력 에는 50명, 하반기에는 22명을 모집하 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 접 근성을 높인다.

발달지원 종료 이후 부모 및 보육교사 선정 아동에게는 10회의 개별 맞춤 서 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해 발달변 비스와 1회의 부모상담이 제공되며, 사 화를 정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후속지원 우리아이 프로젝트는 영상 콘텐츠 과 전·사후검사를 통해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일회성 개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달관리 시

> 박장석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타임으로, 이 시기의 적절한 개입은 아 이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전 북자치도는 도내 모든 아이들이 발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김영태 기자

## 정성호 의원 "조국 사면필요···본인·가족 처벌 불균형"

#### '이준석 제명' 사실상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최 측근그룹인 친명 했다. 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

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국회 청원에도

로 보인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 다. 에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 그의 아들 또 "과거엔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 의원의 제명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어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 생각"이라며 사실상 제명을 반대했다. 원은 12일 조국 전 조국당 대표의 사면 지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의 필요성을 밝혀 조국 전 조국당 대표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 에 대한 사면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 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라고 말

이어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 이준석 개혁당대표의 제명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불구하고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당 의원의 제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당이 전날 방문 명 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 서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

다고 생각한다"며 사면해야 한다고 답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대 해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정당해 산을) 제소한다"며 "과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 는 힘든 것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입 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 원장이 정당해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그건 저는 너무 과도하 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 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 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묵 기자



#### 13~27일 매주 금요일 밤 심야극장운영 퓨전국악공연도 선봬

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준비해 전주의 밤의 매력을 더욱 물들이게 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맛있는 전주심야 극장'과 'HI-LIGHT 전주! 야간연회', 'HI-LIGHT 전주! 워킹나이트 투어'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 판소리 소설 수궁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은 전주 야간관광 의 대표 콘텐츠로, 13일부터 27일까지

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 관련 영화를 함 께 감상하며 지역 셰프가 전주 십미(十 味)를 곁들여 조리한 상영작 관련 음식 과 음료를 관광객이 직접 맛보고 즐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가 본격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밥정(13일) △ 카모메 식당(20일) △줄리엔 줄리아(27 일) 등의 영화와 영화 속 음식을 만날 수 있다.

> 또한 오는 21일과 28일에는 완판본문 화관에서는 조선 출판문화의 중심지 전 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선의 장르의 퓨전국악공연을 극장식 쇼로 해 석해 선보이는 'HI-LIGHT 전주! 야간 연회'가 펼쳐진다.

매주 금요일 밤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진 아름다운 야경 등 다양한 야간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투어상품인 'HI-LIGHT 전 주! 워킹나이트 투어'도 선보일 예정이

>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로 특화된 야 간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연중 야 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 해나갈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야간관광은 머무는 관광, 소비하는 관 광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고유한 정 체성과 밤의 매력을 살린 야간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 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 특히 올해는 전주의 관광명소와 함께 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공식인스타



그램(@jeonju. travel. korea)과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바닥분수 운영

12시~오후 7시까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바닥분수는 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 321.2 ㎡ 크기로 설치됐다.

지난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

영된다.

비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가 시시각각 다양한 모양을 연출해 이 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분수와 직접 접촉하는 만큼 공단은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시민들이 시원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로 바 닥분수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 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등 시설 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구인·구직의 날 행사 취업 열기 '후끈'

#### (주)한우물·나래식품 등 4개 업체 현장 채용

일자리를 원하는 전주지역 청·장년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구인난을 연결해 주는 답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일자리 행사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구 직난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돕고 인재 를 찾지 못하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한 '2025년 제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시를 개최했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주)한우물(볶음밥 다. 제조업체) △㈜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니래식품(주)(만두 제조업체) △(유)돈두 사랑(편육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 년층 구직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이번 행사에 앞서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률 을 높이기 위해 한몫을 거들었다.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사들은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 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개인별 맞춤 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전주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 남의 날' 행사를 매해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회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 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구 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간 만남을 통해 침체된 고용시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로 구인 신청을 하

면 맞춤 알선과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 채 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덕진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 가속화

#### 체계적 수질 관리 공원 이용 만족도 업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자연 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휴 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덕진호수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전주시는 덕진호수 특성에 맞춰 오염물질과 유기물을 분석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분해하는 광촉매를 활용한 수 질개선사업이 주안점이다.

지난해 덕진호수 수질 복원을 위한 첫 걸음으로 연화교 기준 서측 호수의 바닥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했 으며, 부족한 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조 시를 거쳐 2개소를 뚫어 지하수 500톤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차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오 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2차 사업을 추진

이 사업은 호수 내 미생물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저 슬러지를 분해할 수 있는 광촉매제를 주 1회 투입 및 혼합하는 방 식으로, 시는 호수의 탁도 개선과 조류 번식, 악취 저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질개선사업의 초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덕진호수 내 부영양 화 지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 력의 결과로 덕진공원에서는 천연기념 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그리고 노랑부리저어새가 잇따라 관찰되는 등 생태 건강 회복을 보 여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보호 및 서식지 복원 △열린광장 조성 △ 창포원 조성 등 기반사업을 완료해 시민

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와 덕진공원 수질개선과 더불어 △남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委, 완산구청·주민센터 점검

#### 19개 주민센터 환경 개선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 회(위원장 최용철 의원)는 12일 완산 구청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 고 관내 19개 주민센터의 청사 운영 했다.

이날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원실 등 구 청사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시민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살폈다.

이어 완산구 관할 19개 주민센터의 청사 운영 현황 보고를 받은 의원들 은 청사 신축 및 시설 개선의 우선 순 위, 예산 편성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구청과 주민센터 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의 현장 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 는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회에서도 예산 및 정책적 지원 방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완산구청, 구민 만족 현장행정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청(구청 장 김용삼)이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구민들 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동장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에 나섰다.

완산구청은 각종 민원에 대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신속·정확하게 해 다. 결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 발생 지역 과 안전취약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 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구민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 을 기울이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적극행정, 현장 에 답이 있다!'를 모토로 정하고 다양 한 현장 행정을 펼쳐왔다.

여기에 구청은 19개동 동장들이 현 장으로 나가 점검을 시행하는 '동네 한 바퀴' 일일 현장순찰제를 더욱 강 화해 청소취약지 정비와 더불어 주요 사업 현장 및 안전취약지에 대한 사 전점검을 통한 집중 순찰을 추진한

구청은 앞으로도 집중 현장순찰을 통해 각종 민원을 사전에 점검 및 처 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월 1회 보고를 통해 관련 부서와 내용을 공 유하는 등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 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 1388청소년지원단, 전주시 청소년 보호 '앞장'

#### 15개 기관 40여 명 참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 혜선)는 12일 중앙살림광장과 객사 일 대에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지원을 위한 제5회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아웃 리치를 실시했다.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아웃리치는 청 소년 유관기관이 연합해 위기(가능)청소 년을 직접 발굴·초기 개입·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 전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날 1388청소년지 원단 연합아웃리치에는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완산구청 △완산경찰서 △전북 해바라기센터(아동) △전라북도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주시정신건강복지 센터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임마누엘) △ 전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푸른) △전주 남자단기청소년쉼터(한울안) △전북도 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전주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평화사회복지관 △해피 드리머스심리상담연구원 등 15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이날 아웃리치에 참여한 1388청 소년지원단은 중앙살림광장에서 위기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 청소년 발굴·연계를 위한 부스를 운영 하고, 1388청소년전화 등 거리 상담과 길거리 홍보,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전개 하면서 청소년안전망 홍보를 위해 1388

청소년전화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임은실 1388청소년지원단장(해피드 리머스심리상담연구원장)은 "1388청소 년지원단이 연합해 청소년들이 많은 거 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1388 청소년지원단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 다"면서 "앞으로도 1388청소년지원단이 든든한 울타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아웃리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1388청소년 지원단원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앞으로도 1388청소년지원단이 원활하 게 소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덕진서 모래내지구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 모래내지 구대는 12일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모래내지구대장(경정 최 찬권)과 팀장 등이 고령자 밀집 장소인 경 로당 등을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 동에 나섰다.

여름철을 맞아 고령자의 외부활동이 증 가하는 시기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모래내지구대 관내 경로당 등 30여 곳에 방문해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보 행자 교통안전 수칙과 자전거 이용방법 안 내 등 교육활동을 펼쳤다.

모래내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교 통문화 정착과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 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 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 긴급차량 우선신호 조작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 구조공작차 1대 등 총 8대의 시스템 장 일 저녁 8시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단말기 조작훈련을 실시 했다.

이번 훈련은 전북자치도소방본부가 최근 전주·군산 등지로 시스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실제 운용 대원의 숙련 도를 높이고 비상시 즉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지휘차 1대, 구급차 6대,

착 차량이 투입돼 효자센터를 시작으 로 구조대, 평화센터 등 순차적으로 신 호 자동제어 실습을 수행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실전 훈련으로, 시스템 작동부 터 골든타임 확보까지 전 과정을 점 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 농진청, 홍잠 암세포 제거·면역 증진 입증

#### '찐 누에' 홍잠 추출물 연구 대식세포·자연살해세포증식 혈액암·췌장암등세포제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한림대학교 (고영호 교수 연구팀)은 백옥잠으로 만 든 홍잠이 선천 면역 세포 증식을 촉진 해 암세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등 병 원체 제거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누에 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 후 가공한 것

으로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 놀 등 다양한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

연구진은 홍잠과 초임계 추출기로 추 단백질 양이 1.5배 늘었다. 출한 홍잠 추출물 모두 대식세포와 자 연살해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암세포를 인식해 제거하는 면역 작용을 증진하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것을 확인했다.

세포 실험 결과, 홍잠 추출물은 자연 살해세포(NK92) 증식을 7% 촉진했다. 또 뇌종양, 혈액암, 췌장암 세포들의 제 홍잠(弘蠶)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몸 거 능력도 높였다. 특히 뇌종양 암세포 (교모세포종)를 제거하는 능력은 3배 이

면역력이 낮아진 실험 쥐에게 홍잠을 먹인 결과, 면역에 관여하는 비장의 비 (B) 림프구 기능이 촉진돼 혈액 내 면역

티(T)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를 증식

홍잠을 먹은 정상 쥐도 면역 단백질과 획이다. 암세포 제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홍잠 추출물이 대식세포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염증반응을 악화 시키는 산화질소(NO) 생성과 염증성 사 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

이를 통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탐색 해 제거하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 용을 각각 20배, 5배 이상 촉진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 했으며, 앞으로 임상 시험과 함께 시켜 암세포를 탐지해 제거하는 능력도 홍잠 원료 표준화, 자동화 대량생산 체 계 등 기반 연구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

>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 변영웅 과장 은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홍잠의 간 질 환 예방, 인지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능 을 밝혀 왔다"며 "앞으로도 산업화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 다. /김영태 기자

여름을 알리는 절기 망종에는 보리의 본격적 수확이 시작된다. 사진은 보리 수 확에 한창인 농촌의 모습. <사진=전북농기원>

#### 망종이 지나면서 햇보리 수확에 한창인 농촌

#### 농촌은 지금 🗸

망종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 로, 본격적으로 여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기다.

망종이 되면 농촌에서는 추운 겨 울을 이겨낸 보리가 결실을 맺고, 본 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농촌은 지 금, 보리 수확으로 분주한 하루하루 찰쌀보리와 늘찰보리를 밥쌀용으 를 보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보리 생산량 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은 약 3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보릿 고개 시대에는 쌀 대신 주식을 담당 하며 높은 생산량을 유지할 때도 있 었으나 2018년 47천ha를 기점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해 최근 6년 사 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맥주 전용 보 이 48.9%나 감소했다. 반면, 1인당 리도 생산되고 있다. 보리쌀 소비량은 2015년 1.3kg에서 폭 증가했다.

보리는 쌀, 밀, 수수, 옥수수와 함 께 주요 곡류로 꼽히며, 영양가 또 한 탁월하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서 당지수는 낮기 때문이다. 특히,  $\beta$ 

-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 하, 혈당조절, 장 건강 개선에 효과 적이다. 이 때문에 당뇨 증상이 있는 성인들은 흰쌀밥 대신 보리를 섞어 먹기도 한다.

보리는 주로 밥쌀용과 보리차용으 로 품종이 나뉘는데 전북에서는 흰 로, 큰알보리를 엿기름용과 보리차

보리는 월동기에 파종해 봄에 생 육하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적고, 친환경 식품으로서의 이미지가 높 아 선호도 높은 잡곡 중 하나다. 또 한, 시원하고 청량한 맛으로 보리 맥

최근 다양한 수입산 잡곡 유입으 최근 3년간 1.5~1.6kg 수준으로 소 로 보리 생산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 만,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 한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농업기술원은 기대하고 있다.

<제공=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 전북도, 잔류농약 야간 신속검사 150% 확대

다.

#### 여름철 농산물 안전점검 강화 345종 오남용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 내 농산물 농약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 에 따라,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농 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 형마트 등 유통현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깻잎, 열무, 근대 등 여름철에 부적합 판 정 빈도가 높은 채소류를 대상 총 345종 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정밀 분석으 전국 시도 및 생산지 관할 행정기관에 로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총 520건의 농산 압류·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물을 검사한 결과, 아욱, 근대, 깻순, 무,

취나물 등 5건에서 터부포스, 이미시아 포스, 피플루뷰마이드 등 살충제 성분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

올해는 보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이뤄지는 야간 신속검사를 200건에서 300건으로 150%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사 항목도 중점관리 농약 6종 을 추가해 총 345종으로 늘렸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 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농산물 농약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 /김영태 기자 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전북도>

## 전북, 지역 식품기업·13개국 바이어 '1:1 수출상담'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도내 중소식품기업 70곳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식품기업 과 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 위 였다. 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했다.

북지원본부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12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됐 다.

회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 받았다. 계해 마련됐다.

일부를 전북으로 직접 초청, 도내 식품 담을 이어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독일, 중 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총 21개 해외 유망 바이어사(28명)가 참가 해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 여 개사가 참여해 열띤 수출상담을 벌

이번 매칭은 바이어 관심 품목과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매칭한 '1:1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KOTRA 전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상담회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 기 반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즉석조리식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일산 품등 다양한 분야의 전북 식품이 소개 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 되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포 서울푸드에 참가한 글로벌 바이어 중 함해 올해 도내 중소기업 330여 곳을 대 상으로 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과 심도 있는 개별 비즈니스 상 있다. 오는 11월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 원과 함께 뷰티, 식품, 생활용품, 바이오



전북도는 도내 중소식품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2025 전북 수 출상담회'를 성료했다. <사진=전북도>

헬스 분야 바이어를 초청하는 '2025 JB- 은 "도내 식품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넓어질 전 연계, 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등 다각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사업단, 농생명용지 5,288ha 영농계약

#### 환경관리 의무사항 신설 간척지 재임대·퇴비 사용 단속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력증진 차원에 서 5,288ha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했 다.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122개 농업 을 기하도록 했다. 법인이 법인당 평균 43ha 규모로 짧게 는 1년, 길게는 10년간 밀·콩·옥수수· 시 점검을 통해 영농상황 점검체계를 조사료 등을 재배한다.

새만금사업단은 영농 착수 전에 농업 농업용수 공급 전이어서 자연강우 등에 의존해야 하는 점과 영농 시 재임대 등 행위 제한사항, 환경관리의 중요성 등 있도록 했다.

특히 행위제한 위반과 관련해 '23년 혔다. 불법 재임대, '24년 허용되지 않는 가축 향후 임대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하 요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는 한편 형사고발 하였음을 알려 간척

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웠다.

또 이번 계약 시 환경관리 의무사항 오재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역 는 비료만을 허용함으로써 시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예 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영농 시 농 업비점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

오재준 새만금사업단장은 "정기·수 강화하고 불법 재임대, 미승인 퇴비 사 용 등 영농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법인을 대상으로 새만금 농경지가 아직 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 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사수 및 간척 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효 을 교육해 간척지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율적·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 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조성이 모두 완 분뇨 퇴비 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로되면 단지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 법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게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

/김영태 기자

## 전북도,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中 개별관광객 공략'

#### 타시도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 전북미식·한지 체험 등 마련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안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 및 현지 관광 의 현지 소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객 공략에 나선다.

Kong: International Travel Expo Hong 행보다. Kong)는 홍콩 최대 규모의 관광 전문 박람회로서, 60개 국가와 500개 지역이 광지와 축제, 미식, 전통문화 콘텐츠를 참여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글 중심으로 현장 여행 상담과 체험 이벤 로벌 관광 플랫폼이다.

전북자치도는 135㎡ 규모로 조성된 14개 시군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을 펼 지원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친다.

서 전북 단독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 행 사를 열어 전북만의 전통문화와 미식을 데 목적이 있다. 전북의 전통문화는 물

이 행사는 전북 관광설명회를 시작으 로, 전주비빔밥과 애호박전을 직접 만들 어보는 한식 쿠킹클래스, 고창 복분자, 전북자치도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남원 김부각 시식, 한지 공예(부채와 컵 받침 만들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14개 시군과 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 다. 하루 동안 총 2회차로 나눠 100여 명

이번 해외 마케팅은 급증하는 중화권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E Hong 자유여행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홍보부스에서는 전북의 대표 관 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전북 여행지를 주제로 한 한국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 전북 '퍼즐 맞추기'와 관광엽서 쓰기, SNS 구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독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전북의 관광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와의 교감을 특히 오는 14일 주홍콩한국문화원에 통해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 지 여행사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14개 시군과 15일까지 4일간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에 나선다. <사진=전북도>

전략은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중화권 관 을 대상으로 한 타깃형 홍보를 확대해 광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제관광박람회를 계기로 전북 자치도는 중화권 개별관광객(FIT) 유치 를 위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문화와 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론, 체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를 바탕으로, 한류에 관심 많은 관광객 나갈 예정이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상품개발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관광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제공

전북지방조달청은 12일 전북지방중 소벤처기업청 주관 '2025년 전북기업 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에 참석해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전북조달청은 참여 기업들에게 벤처나라, 혁신제품, 조달 우수제품 등의 조달제도를 설명하고 각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현장 컨설팅 을 진행했다.

업이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지만 공공 조달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 모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조달시장 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전문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 제도이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정 공공조달길잡이는 경쟁력을 갖춘 기 보의 부재, 상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조 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25년 교육공무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 전북대, BK21 우수 대학원생 국제연수 전원 선발 '쾌거'

#### BK21사업참여우수인재들 각전공분야국제공동연구수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4단 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 연수 지원사업'에 대학원생 5명이 지원 해 전원 선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사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됐다.

업'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 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수 인재를 선 발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가운데 3개월 이상 BK21 사업에 참여한 우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외 연구기 관과의 협력 가능성과 연구 성과, 발전

전북대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 심사 를 거쳐 2명을 선발하고, 교육부의 대학 별 추천을 통해 3명을 추가 추천해 강윤 아(기록관리학과), 김현규(전자정보공 학부), 송도훈(사회복지학과), 정원균(환 경에너지융합학과), 한재호(농축산식품 융합학과) 박사과정생 등 5명 모두가 최 종 선정됐다.

선발된 대학원생들은 각자의 전공 분 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에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항공료 및 연수 비 등 총 1억600만원이 지원된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이번 5명 전원 선발은 우리 대학 대학원생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의지를 대외적 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 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프로그

/최성민 기자

#### 사서 등 7개 직종 총 262명 7월 1일부터 배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 거석)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 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최종 합격자를 12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교육공무직 원은 7개 직종, 262명이다.

직종별 최종 합격 인원은 △사서 86명 △교무실무사 6명 △조리실무 사 135명 △특수교육지도사 31명 (장애 포함) △교육복지사 2명 △사 회복지사(Wee센터) 1명 △과학문 화해설사 1명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서 채 용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는 전북 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독서인문 교육'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라 볼 수 있다.

학생 독서량 및 도서관 이용률 향 상을 위한 전문인력인 사서 확대 배 치로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탄력 이 붙을 전망이다.

최종합격자는 채용 후보자 등록 이후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 치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 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교육공무직 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교육환경 변화·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

#### 제13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 석)은 12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제13 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 영하고 있다.

회의에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해 '2025년 적 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 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



다.

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 방향으로 삼아 18개 핵심과제를 담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경

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적 우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이

중점과제로는 도교육청 1부서 1과제

발굴을 통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정책 홍보 활성화 △학교 행정업무 AI 로 더 쉽고 빠르게 △안전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안심 하교 지원 「늘봄지 킴이」운영 △학교 맞춤형 대입지원프 로그램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선정 했다.

적극행정 책임관인 이홍열 감사관은 "AI·에듀테크 등 공교육의 변화가 일어 나는 시기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 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수요 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2025년 실행계획을 충실 히 이행하고,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지 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이 전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보 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

#### 우석대, 일본 교토서 '한일학술교류' 개최

#### '한반도둘러싼대화와교류'주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동아시아 평화연구소가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와 함께 오는 21일부 터 22일까지 교토 수작쿠캠퍼스에서 '2025 한일학술교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와 교류'를 주제로 열리며, 코리아연구 센터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 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학술행사는 21일 두 개 세션으로 나 뉘어 진행된다. 제1부는 김우자 리쓰메 본 간 교육 문제와 근대적 시선'을 주제 로 발표가 이어진다.

구센터 20주년의 의미와 성찰'을 주제 화백의 작품 전시도 함께 열린다. 로 진행된다.

2025 한일학술교류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와 교류'

(HERED

이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과 일 과 등 주요 역사 현장을 함께 탐방하며 평화와 역사에 대한 공동 학습의 시간 을 갖는다. 또한 17일부터 29일까지 교 제2부는 송기찬 리쓰메이칸대학교 토 아스트라518 갤러리에서는 '민중미 코리아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코리아연 술, 나의 진경산수'를 주제로 한 송만규

정호기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은 "이 둘째 날인 22일에는 교토 평화박물관 번 한일학술교류는 단순한 학문적 교 류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 적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 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 한 자리"라며 "특히 코리아연구센터 설 립 2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행사

/최성민 기자

## 2025 장수과학축전 개최, 과학의 즐거움 속으로!

#### 14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3D펜 창작·VR 체험 등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교 육장 추영곤)은 오는 14일 장수한누리 전당 산디관 및 야외공간에서 '2025 장 수과학축전'을 개최한다.

이 축전은 유·초·중·고 학생과 학부 모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융합과학 체 험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했다.

VR 체험, SW·AI 코딩활동, AI디지털교 과서 체험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체

험 중심 활동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특히 '과학 마술'과 '솜사탕 로봇 체 험'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 정이다.

추영곤 교육장은 "장수과학축전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 이 과학을 즐기고, 탐구하고, 함께 만들 어가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 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과학축전을 총 24개의 체험 부스가 오전 10시부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 탐구력 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3D펜 창작, 을 신장시키고 지속적인 과학 문화 확 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이다.

####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 어린이 대상 '옛이야기' 연중 운영

#### 16일부터 접수 받아

전북자치도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은 대 2회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12일 전주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 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옛이야기 특화도서관 다. 인 옛이야기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하며, 용머리 여의주마을 설화를 담 양한 옛이야기 들려주기와 책놀이, 옛이 야기도서관 엽서 색칠 등 어린이들이 다 고 있다.

7~8월 중 월 7회(총 14회) 운영될 예정

1회당 최대 20명까지 접수받을 수 있 으며, 동일 기관에서 신청 시 기간 내 최

보육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옛이야 육기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보따 기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 자원활동가인 이야기보따리단이 맡아 며, 희망 보육기관은 안내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 있는 동화책 '깜장미르'를 비롯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옛이야기도서관으 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따뜻 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 한 옛이야기와 신나는 책놀이가 어우러 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함 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은 만 3세 이 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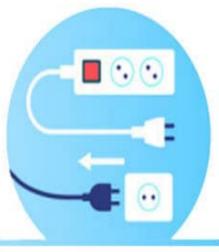
# 을이름, <mark>물~하기</mark> 에너제 절약 표엔트 5가제



냉방온도 1℃ 높이고 실내온도 26℃ 유지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시원차림으로



문열고 냉방영업 자제

#### 정읍시, 벼 재해보험 가입비 90% 지원 독려

태풍과 병충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정읍시가 가입비의 90% 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시비 지원을 확대해 농가는 보험료의 10% 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보험 가입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병해 충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 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는 제도다. 특히 벼 보험의 경우 집중호우, 조수해, 화 재는 물론,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은 6월 20일까지며,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 다. 시는 보험 가입 전 약관과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총 65개 품목을 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 3359ha 면적에 7406건이 가입돼 2600건 이상에서 약 17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로 인 해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이른 무더위에 온열질환 주의 당부

익산시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 위 속에서 대시민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나섰다.

익산시 보건소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건강관리 강 화를 당부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 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열 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 으며, 현재까지 익산시에서는 온열질환 신 고 사례 1건이 보고됐다.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은 심할 경 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예방과 신속 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약자, 만 성질환자, 야외근로자 등 고위험군은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 주요 증상은 고열, 과도한 발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 근육경련 등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낮추고 충분한 수분 을 섭취해야 한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 요하다.

/익산=최준호 기자



#### 달콤한 여름, 익산 웅포에서 블루베리 만나다

익산시는 '제4회 익산웅포블루베리축제' 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웅포면 곱개나루 복합문화센터(웅포면 칠목재로 436) 일원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웅포 블루베리는 산·들·강이 어우러진 천 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돼 품질이 우수하 고, 농협하나로마트와 카카오쇼핑 등 온·오 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웅포블루베리공선회(회장 조경환)가 주관하고 익산시에서 후원한다. 이틀간 햇 블루베리를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아울러 난타, 통기타, 마술, 풍선아트 등 공연 프로그램과 노래 및 장기자랑 무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진행된다. 또한 네이버 라이브 쇼핑을 통해 블루베리를 구매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AI·그린소수 국제사업화

#### 국책사업발굴단 보고회 8대 사업 국책 반영 추진

군산시가 '2025 국책사업발굴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국책사업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적 추 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일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열린 이 번 중간보고회는 군산시가 미래 차세 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 책사업 발굴의 중간 점검 성격으로, 부 시장을 비롯한 정책자문단, 전북연구 원, 각 국·소장 및 사업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북연구원이 발 굴 과제의 추진 현황을 총괄 보고하고, 선정된 8개 우선 사업의 심화 연구 방 향을 발표했다. 우선순위로 선정된 8개 과가 기대된다.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 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아래 기후 위기·산업 전환·사회 안전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사 지향하는 미래형 생활 정책 과제이다. 업으로 구성됐다.

AI 기반 위성활용센터 구축, E-Fuel 실증단지와 화학안전체험센터 구축 등 은 미래 산업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포 괄하는 과제로서, 에너지·교육·환경 분 야의 국책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가 12일 '2025 국책사업발굴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군산시>

를 중심으로 한 우주·수소·해양 분야 의 신산업 육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미 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큰 파급효

성과 베리어프리 힐링센터, K-예술특 구 조성은 삶의 질 제고와 포용 사회를

이 과제들은 대통령 국정과제인 지방 소멸 대응과 사회 통합 외에도 청년 정 착 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 자산의 산업화 등 다층적인 효과까지 내포하고 있어, 군산을 '살기 좋은 도 시', '혁신이 시작되는 도시'로 도약시키

아울러 새만금이라는 국가 전략지대 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이후 정 책자문단의 제언과 부시장 및 정책자 문단장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보고 회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으며, 이후 만 또한 청년농업인 원예특성화지구 조 찬을 통해 관계 기관 및 사업 추진 주체 와의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

> 군산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 출된 정책 제안과 전략방향을 토대로 오는 7월 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는 국책 반영 전 략 수립과 실질적인 국비 확보 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바이오스타트업'코워킹스페이스'운영

####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방형 공유오피스 조성

정읍시가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의 전 초기지로 '첨단바이오 코워킹스페이스 (Co-Working Space)'를 개소하며 창업 부터 성장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를 본격 가동한다.

정읍시는 6월부터 첨단산업단지 복 합문화센터 2층에 마련된 119㎡ 규모 의 개방형 공유사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창 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코워킹스페이스에는 총 8개 기업이 입주하며, 현재 창업기획자와 펀드운용 치료제 개발기업인 '셀레브레인'을 비 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 초기 안정적 정착과 성장단계별 맞 롯해 다양한 바이오와 ICT 기반 스타트 업 6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가 참여 하는 정기적 상담과 간담회를 통해 입 사가 입주를 마쳤다. 줄기세포 유전자 주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맞춤형 컨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창업에서 성장과 정착까지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전북 최고(最古) 항공사진 행정업무에 활용

#### 전북최초의시(市) '군산부(府)' 1940년대 정사영상 제작

군산시가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 사진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947년도에 군산지역을 촬영한 항공사 가치도 함께 지녔다. 진 49매를 비롯해, 1969년 촬영분까지

총 195매에 대한 정사영상을 제작했다. 정사영상은 항공사진의 지형지물을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보정한 영상을 말한다.

이중 1910년 군산부(府)로 승격돼 전 한 후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12 북 최초의 시(市)였던 군산을 1947년도 에 촬영한 항공사진은 전북 최고(最古) 의 항공사진이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또한 작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한 군산시 항공사진을 조사하고,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 각적으로 영상정보 구축계획 노력을 진행했다.

이번에 제작된 정사영상은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내부 행정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며, 시민은 국토부의 국토정보맵 (https://map.ngii.go.kr) 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 국정과제 반영 위해 전방위 행보

#### 12일 국회 지역의원 방문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요청

익산시가 지역 핵심 사업을 국정과제 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헌율 시장을 중 심으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정헌율 시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익산 시가 발굴한 주요 대선공약과 핵심 현 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립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지역 공약에 포함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왕궁 자연환 경 복원 프로젝트  $\triangle$ 익산역 광역환승 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북 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 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의 필요성

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 을 상세히 전달했다. 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 산 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당위성을 적극 러스터 조성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 피력했다.

원(All-in-One) 타운 조성 △K-그린바 이오 혁신 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 스터 인입선 구축 △전북권 광역전철 (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에게는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

한병도 의원에게는 '재난안전산업 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클러스 아울러 익산시가 발굴한 △청년 올인 터 조성은 데이터 기반의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진 흥원 설립과 재난안전 데이터센터 구 축을 포함한다.

시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중앙부처 를 방문해 설득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 이다. 또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지 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 화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지역관광 우수지자체' 선정

#### 웅포곰개나루 관광 명소 주목

익산시가 웅포 곰개나루를 중심 으로 추진한 전략적 관광 활성화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12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 로 부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열린 '빅똑컨 2.0 포럼'에서 '지역관 광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 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한국 관광공사가 추진한 '빅데이터와 함 께하는 똑똑한 컨설팅(빅똑컨)' 사 업 반영 성과와 관광 활성화 실적 을 평가해 이뤄졌다.

시는 2021년 웅포 곰개나루를 대 상으로 빅똑컨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 츠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4만 7,000여 명이 웅포를 찾았 으며 3년 연속 방문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웅포 곰개나루는 익산 9경 중 하 나로 금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낙조와 캠핑장, 야간경관이 어우러 진 관광지다. 이에 시는 △노을품 은 삼계탕 말복엔 닭치고 익산 △ 웅포 노을빛 드로잉 페스타 △멍룡 도그나루 캠핑 △별밤 시티투어 등 웅포 곰개나루의 특색을 살린 콘텐 츠를 연이어 기획해 관광객의 발길 을 모으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맞춤형 취업박람회···구직자·기업 '윈윈'

#### 현장 면접·채용 컨설팅 등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만나는 정읍 시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며 현 장 채용과 맞춤형 상담으로 실질적 성 과를 거뒀다.

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 읍 실내체육관에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 는 정읍시와 정읍 일자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이 행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협력해 마련됐다.

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 데 행사는 채용관과 홍보관, 부대행사 다. 신청은 당일 현장접수를 포함해 오 로 구성돼 구직자의 실질적 취업을 지 는 20일까지 현장 또는 유선으로 가능 원하는 종합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톡 하다. 톡히 해냈다.

박람회에 앞서 일자리지원센터는 ㈜ 케이넷을 비롯한 9개 기업·기관과 업 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내 지 속 가능한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

현장 채용관에는 지역 기업과 3대 국책 연구소 등 20개소가 참여해 사무 직, 생산직,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기업 소개 영상을 LED 전광판으로 상영해 구직자의 이 해를 도왔고,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

일자리지원센터는 행사 현장에서 구 청년, 중장년, 시니어, 장애인 등 다 직등록 후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1만 2500원을 지원할 예정이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집중안전점검 112개소 100% 완료

#### 김부시장,추진결과보고회

군산시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국・ 소장 및 소관부서 담당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집중안전 밝혔다.

시장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 민간전문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 별된 시설물이라도 다시 한번 세밀하 게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라 방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 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적사항이 발견된 시설 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윤석열 안전 점검' 추진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총괄과장이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100%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 지난 11일 열린 회의에서 김영민 부 해 주신 군산시 공무원과 관계 기관, 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사고 예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시민이 힘이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인구 10만 유지와 생활인구 50만 달 이다. 성을 목표로 정읍시가 전입유도, 체류 본격 가동한다.

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2일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인구 사랑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전입을 유도 하는 '정읍愛 주소갖기' △사계절 체류 인구를 확대하는 '정읍愛 머무르기' △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읍愛 함께살기'를 핵심 전략으로 한다.

'정읍愛 주소갖기'는 정읍에 거주하 면서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정읍愛 머무르기'는 축제와 행사 규 확대, 외국인 정주 지원 등 3대 전략을 모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 기반 강 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이학수 정읍시장은 저출산과 고령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 '정읍愛 함께살기'는 산업현장의 인 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 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우리 시의 지 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의 중요한 기반이며,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생 활인구 확대 등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에 전 시민과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

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선정

#### 북부권통합형농촌중심지 5년간 3백억투입 관계인구유치기대

'체육관 건립' 등 고창군 북부권(흥덕 면 성내면)에 향후 5년간 300억원이 투입돼 혁신적인 활성화 사업이 추진 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형)' 공모사업에 흥덕·성 내면이 최종 선정됐다.

'통합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역의 잠재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재 생거점'을 추가로 설정해 관계·생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통합·특화 형 사업이다.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300억원(국비 210억, 도비 획이다. 27억, 군비 63억)을 투입된다.

흥덕면 소재지 일원에는 △흥덕 체 육관 건립 △작은 목욕탕 신축 △종합 복지회관 리모델링 △흥덕 문화복지 관(하모니센터) 증축 등을 통해 북부 생활권의 정주 환경 개선 및 통합 생 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화된다.

성내면 동림저수지 일원에는 △체 말했다. 중심지의 안정된 정주 환경조성과 지 류형 복합단지 △체험형 스마트팜 단

지 조성과 더불어 노을과 철새 군무를 테마로 △런케이션센터를 건립해 관 광객을 유치하고 귀농·귀촌에 관심있 는 도시민을 고창군의 관계·생활 인 구로 유입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 을 통해, 고창군 북부 생활권에 혁신 적인 변화와 성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복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관계 인구 유치를 통해 미래 를 여는 고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원평공설시장 활성화 주민 설명회

#### 시민 목소리 현장 경청 문제점·건의사항 공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상권 활 성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 청하며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추진 중인 원평공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평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상인 고령화와 폐점포 증가

원평공설시장의 장래 활성화 대책 마 취했다. 련을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원평공설시장이 자리한 금산면 주민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 민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마을 이장, 주 민자치위원, 시장 상인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김제시 관계 공무원, 용역사 가 참석해 용역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고 또한 질의응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으며, 시는 답시간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큰 방향성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설명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해 적절한 원평공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인천공항간 버스, 적극행정 사례 선정

####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 효과 이끌어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 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 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 부는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시례로 '고 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한 지 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을 선정했다.

고창에선 지난 3월에서야 고창-인천 공항간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이전 에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노선 이 없어 해외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 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주민 이 동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 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고창-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건의해 왔다.

특히 전북도 전남도 간 의견차이와 운 수사 갈등의 악조건 속에서 고창군은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때 국토 교통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토교통부 조정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공항 직행노선의 필 요성을 설명하며 조정 위원들을 거듭 설 득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 직행노선 운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군 민 이동권 보장 △관광객 접근성 제고 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 △세외수입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다. 를 이끌어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고용창출, 지 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사회통 합 등의 효과가 큰 지자체 사례를 발굴.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1분기에는 전국 550건의 사례 중 고창군을 포함한 사례 30건을 선정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개선과 현장 중심 의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공무원 사칭 '노쇼' 주의보

#### 사기 범죄 잇따라 대책마련

전북 고창군에서 군청직원, 군 인, 소방공무원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노쇼)가 잇따르면서 군이 대 책마련에 나섰다.

따르면 이달초 한 농약사에 군청 직원이라며 소개한 남성이 방제복 구입비용을 대신 내달라며 수억원 다. 을 계좌이체 시킨 뒤 사라졌다.

같은날 지역의 복분자 가공업체 에도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자 신의 명함을 보내고 안심시키면서 선물용으로 복분자와 오디를 주문

도시락을 같이 주문해 달라며 특 잠적했다.

이외에도 고창에선 예능프로그 램 제작팀을 사칭한 와인대리구매

피해를 비롯해 장어식당에 예약 한 뒤 잠적하는 피해 등이 이어지 고 있다.

군은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가 질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지역 업 소에 긴급히 안내하고, 군청 공식 12일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등에 누리소통망(SNS)과 블로그 등 온 라인 채널을 통해 주의를 환기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 아울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를 당부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 관은 "군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 식 업무는 반드시 대표전화나 부 하지만 이후 부대원들이 먹을 서 직원을 통해 확인해 주길 바란 다"며 "고창군청 이름으로 의심스 정업체로 수백만원을 송금시킨 후 러운 공문이나 신분증을 받았을 경우 즉시 군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립도서관, 14일~7월 5일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이 책 읽기와 코딩을 융합 한 특별한 독서 프로그램인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 를 바탕으로 직접 코딩을 통해 창의적 표현 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차시로 운영되며 매회 오 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부안군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부안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다.

'쓰레기는 우주에도 있다(연암주니어)'와 '다짜고짜 배구(나무말미)'를 주제 도서로 선정하고 사서와 함께 독서를 진행한 후 코 딩 전문 강사와 함께 3차원 가상공간 코딩 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코딩으로 구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은 물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함 께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 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산단 예초작업 근로자 만족도 제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농공단지 예 초작업을 진행한다.

산업단지(2개)와 농공단지(7개) 내 도 로 및 인도변,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 대상으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녹지공간 고사된 수목을 정비하는 예 섰다. 초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여름철을 앞두고 무성 하게 자란 잡초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우거진 잡초 에서 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주기 업들의 건의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9 개소를 대상으로 예초작업 일제정비

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단지별로 보행로 주변,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 예초기와 운반차량을 동원해 작업 및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폭염으로 고 사된 녹지공간의 수목을 정비해 입주 기업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농공 단지 내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한 정 비 활동을 통해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가 일하고 싶고 기업 하기 좋은 김제 조성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문화예술과-문화예술단체, 청렴 앞장

#### 청렴문화 확산 간담회

부안군 문화예술과는 12일 지역문 화 예술단체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영역에서의 청 렴성 제고와 민·관의 협력 체계 강화 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부패·공익신고 요령, 신 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함 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 패 위험요소를 짚어보며, 이를 예방하 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안 청렴 5無(불친절, 갑질관

행,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 실 천을 공유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소식과 사회 선반의 정렴 문화 를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

또 청렴문화의 확산이 공직사회 내 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 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 로 민·관이 협력해 신뢰받는 행정, 참석자들은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 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투명성 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윤형주 초청 고창포럼 열어 고창군이 12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국

'윤동주의 시, 윤형주의 노래'

내 대표 싱어송라이터 윤형주 강사를 초청 해 '윤동주의 시, 윤형주의 노래'를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6촌동생이자 포크가 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형주 강사가 윤동주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문학적 감동으로 전달하려 고 했던 노력을 이야기 했다.

윤동주의 시에 별이 많이 나오는 이유, 독 립운동 사상범으로 체포된 후부터 안타까 운 죽음을 맞이했던 상황 등을 전달하며 시 인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과 문학에 대해 기 억을 되새기며 전달했다.

또한 윤동주의 시를 작곡해 히트를 쳤던 노래가 많으고 그로 인해 시가 많이 알려졌 으며 시어와 시어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발 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조화, 화음이 많다 는걸 강조했다. 윤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담은 본인의 음악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진 솔하게 이루어 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훈은 과거의 기억 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며 "많은 독 립운동가를 배출하고, 다양한 독립 활동이 이뤄졌던 고창에서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 누며 보훈의 정신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사회적 관심 유도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2025년 제 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기념 캠 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5일 '제9회 노인학 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김제 징게장터 및 전통시장 일대에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 기관, 김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징게장터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김제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돌면서 주변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 성 제고 및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시장의 한 상인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됐다"며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는데, 지금의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게 미래의 내 모습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노인학대는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범국민적 노인학대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김제 시의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 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KB증권, 부안갯벌 프로젝트 2천만원 기부

#### 한평생 프로젝트에 사용 생태보전·상생협력 실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KB증권(대 표이사 김성현), 월드비전(나눔사업부 문장 나윤철)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 도 KB증권 본사 22층 대회의실에서 한평생(生) 부안갯벌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KB증권 임직원 200명이 참여해 총 2000만원의 기부 금을 군과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부안군 줄포만 일 대 갯벌의 생태보전과 탄소흡수원 확 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SG(환경· 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위한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후위기, 경제 말했다. 위기, 지역소멸이라는 3대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ESG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갯벌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KB증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금 융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선 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북스타트 책놀이 1기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영·유아의 책과 첫 만남을 돕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 해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1기'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부모들이 집에서도 배운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17 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 터 11시 30분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시립도서관 3층 채움터 1강의 실이다.

참여 대상은 13개월부터 26개월 영• 유아와 보호자 총 10가족으로, 오는 16 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 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 책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 해지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부모와 자 녀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 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대한유소년야구연맹 이상근 회장에 감사패 수여

순창군은 지난 11일 공설운동장에서 열

린 '제5회 순창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시상식 자리에서, 대한유소년야구연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유소년 야구선수, 학부모, 연맹 임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 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뜻

이날 최영일 군수는 직접 이상근 회장에

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10여 년간 순창군에

서 유소년 야구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깊은 감사의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은 매년 삼일절, 현충

일,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 연휴를 활용해

순창에서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를 정례

각 대회에는 선수단과 학부모 등 약 3,000

여 명이 순창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한 대규모 단기 체류객 유입은 관광, 숙박,

음식, 소매 등 지역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경

실제로 대한유소년야구연맹외 개최하는

유소년 야구대회는 순창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군민들로부

/순창=박지헌 기자

터도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내

생물테마전시시설 14일 개관

남원시는 오는 14일 남원백두대간생태교

육장 내에 생물테마전시시설을 정식 개관

2023년 8월부터 무료로 임시 운영했던 생

물테마전시시설과 지난 5월에 신축한 '맹

금류 사육장'을 비롯해 특수동물실 2실, 곤

충실, 물고기실, 총 5개 전시실 규모로 확대

생물테마전시시설은 이번 정식 개관을

통해 총 5개 전시실에서 50여 종 이상의 동

물을 선보이게 된다. 전시 종에는 블루트

리 왕도마뱀, 모홀갈라고 원숭이, 하늘다람

쥐, 기간티아왕지네 등 생소하지만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며 특히, 맹금류 사육장에는

아메리카수리부엉이, 흰얼굴소쩍새 등 5종

생물테마전시시설 이용은 남원시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되며 현장 결

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5,000 원이지만 남원사랑상품권 2,000원을 지급

/남원=정하복 기자

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10마리의 다양한 올빼미들이 전시된다.

운영된다.

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뜻을 전했다.

적으로 개최해 왔다.

맹 이상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8

## 순창군, 지역특화 '청년통계' 착수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18~49세 청년 삶 전반 인구·일자리 등 79개 지표

순창군이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다.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청년통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는 12월 말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 각도로 분석할 방침이다. 터 통계청과 협력해 지역특화통계 개 발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과 노동시장 진입·유지 등을 통해 경  $\triangle$ 창업  $\triangle$ 복지  $\triangle$ 건강 등 6개 부문 총 제·사회적 삶의 질이 결정되는 '청년 79개 지표 선정을 완료했다. 기'에 주목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 역통계 개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

각종 업무자료를 연계·가공해 작성하 이번 통계는 군이 올해 처음 추진하 는 '행정(가공)통계'방식으로 추진되며, 는 지역특화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오 군은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우선 선별하고, 이 앞서, 군은 정확한 통계기반의 정책 를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현황을 다 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

> 이를 위해, 군은 올해 4월 호남지방통 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지역민의 생애주기 중 교육 의회를 통해 △인구 △경제 △일자리

또한 '순창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부터 49세 이번 청년통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까지 넓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통 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이번 통계는 지역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진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 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에도 유용한 기반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은 '옥천인재숙 강사 대상 입시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총 8명의 강사 가 입시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 옥천인재숙 강사 8인 입시전문가 탄생

#### 입시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지역 교육자립 기반 마련

장 최영일 순창군수)가 추진한 '옥 천인재숙 강사 대상 입시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총 8명의 강사가 을 갖추게 됐다. 입시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

웨이 중앙교육과 협업해 지난 4월 며,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다. 비롯해 정시·수시 전형 분석, 학생 부 종합전형 전략, 고교학점제 대 응 전략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한 학습지원과 생활관 운영을 통 가 있다는 평가다. 해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는 교

육기관이다.

이번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 은 옥천인재숙에서 오랜 기간 진 순창군은 (재)옥천장학회(이사 학 컨설팅 실무를 수행해 온 경험 자들로,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턴트 역량

또한, 군은 앞으로 이들 전문가 가 인재숙 입사생뿐만 아니라, 지 이번 교육은 입시 전문기업 유 역 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 으로도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부터 6월까지 약 10주간 진행됐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그동안 외부 인력에 의존해왔던 입시 상담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역량으로 자립형 교육 서 옥천인재숙은 지역 학생들을 위 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의미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청년농 육성 '탄력'

#### 대산면스마트팜교육단지조성 청년농 실습·창업 연계 지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농생 명산업지구 조성사업(스마트팜 교육・ 실증단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 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3개 시군 (남원, 진안, 고창) 중 2곳만이 선정되 는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남원시 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1722-1 일원 4.2ha 부지에 조 성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 업비 50억 원(도비 25, 시비 25)이 투 입된다. 이곳에는 온실 0.5ha와 노지 0.9ha의 실습재배 공간이 마련돼, 농생 명산업지구 입주 희망 청년농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스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시설 농업기술센터, 남원글로컬캠퍼스와 연 트농업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원시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통해 농생명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 될 예정이다.

지속가능 실천형 정책 논의

완주형 에너지 시스템 모색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

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가 지난 11일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

위원회는 지난 9일 제293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활동을 승인했

으며, 위원장에 심부건 의원, 부위원장

이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로 하는 탄소중립 의원연구단체 활동

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연구 활동을 통

격적인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는 지난해 심부건 의원을 대표의원으 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구성 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본 비롯한 선진지 견학 등 추진할 계획으

심부건 위원장은 "정부의 분산에너 과 탄소장벽 △에너지 4.0시대와 가상

지법 제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 발전소(VPP) 및 완주군 송전선로 갈등

다"며, "관련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갈 예정이

유를 밝혔다.

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의 부터 5개월간 활동하며, 전문가 포럼을 이다.

에 서남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돌입했다.



남원시가 도 농생명산업지구 공모 선정으로 대산면 일원 부지에 청년농과 농업인 대상 실습 중심 스마트팜 교육 실증단지를 2029년까지 조성한다. <사진=남원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

탄소중립녹생성장 특별위원회는 6월 굴하는 것을 목표로 할동한다는 계획

로  $\Delta$ 분산에너지와 기본소득  $\Delta$ RE100 라는 주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는

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 다.

농의 영농기술 숙련도를 제고하고, 수 화될 전망이다. 료자에게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및 창업단지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해 지 어 청년농의 초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속적인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 있는 실전형 훈련 공간으로 기능하며, 을 활용한 기술 연구와 데이터 축적을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위 본격 가동

스마트팜 교육장은 단순 교육장을 넘 계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의회, 의정연수서 AI 역량 강화

#### 2025년도 1차 의정연수 개최 청렴의식 제고 및 챗GPT 교육

이번 연수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의 식을 높이고,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이날 연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점을 뒀다.

AI 도구인 챗GPT 활용 교육이 이어 졌다. 오전에는 청렴교육 전문가 강신 교 강사가 '꼭 알아야 할 청렴이야기' 를 주제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우석대학교 김대호 교수 가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구, 생성형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챗GPT의 심화 활용법을 소개했다. 교육은 생성형 AI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자료 작 성, 정책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 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역량 강화에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 도 제1차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그리고 생성형

## 완주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건강 지킨다

#### 1,279명 대상 안전 모니터링 넥쿨러 등 폭염 대응물품 배부

완주군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 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 니어 안전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참 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단', '시니어건강지킴이' 등 2025 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 년 신규사업을 포함해 읍·면 선별장, 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을 통해 김·두부 제조·판매 작업장 등에서 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홀몸노인, 만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별장 등 실외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 있다.

신들에게 넥쿨러, 마스크 등 폭염 대 응 물품을 배부하고, 현장 점검을 통 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며 안전한 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전북형 시 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 이번 모니터링은 '시니어주거복지 동전·후 참여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 확인하고 응급벨 장비 등을 점검하는 현재 완주군은 도로변 환경정비, 선 예방적 돌봄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완주=김명곤기자

#### 동 중인 참여자 1,279명을 대상으로 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 완주군 '책육아 동아리' 공동체 육아 문화로 확산

완주군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책육아 동 아리' 활동이 지난 5월 책육아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발적인 공동육아 실천 동아 리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완주군 대표 유아독서운동이다. 독서를 통해 아이의 정서·인지발달을 돕고, 가정 내 독서문화 정착과 부모의 책육아 역 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 '책 육아 동아리(2기)'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책을 매개로 한 공 동육아의 의미와 사례를 나누고 이를 바탕 으로 실질적인 품앗이 공동육아로 확장되 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 어가며, 책놀이 활동, 육아 정보 공유 등 다 양한 방식으로 공동 책육아를 실천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 이들에게 풍부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긍 정적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처음 운영된 책육아 동 아리 1기는 책으로 양육의 기쁨과 어려움 을 나누며 돈독한 공동체를 형성한 바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배수로 사전점검 '침수 없는 여름'

#### 상습 침수구간 우기 전 정비 이달 내 2차 정비도 마무리

고 관내 주요 도로변 배수로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 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도 지역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최종 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대비 점검 및 2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치에서 추진됐다.

3일간 3개 점검팀을 운영해 상습 침 수구역 및 읍면동 준설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 사전점검을 실시했 다. 점검 결과, 토사·쓰레기·낙엽 등 으로 인해 배수가 지장될 우려가 있 남원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 는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졌 으며, 도로변 준설작업 등 1차 조치를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 으로, 오는 6월 내 읍면동 준설 건의 이로써 여름철 우기 도래 전 모든 정 시는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비를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빈집 매입해 생활·공공시설로 활용

합하는 구체적인 지역 에너지의 생산 문제  $\triangle$ 바이오가스와 유기성폐자원  $\triangle$  을 기울일 것"이라고 향후 특별 위원회

과 소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요구 됐 수소연료전지와 ESS저장장치 등에 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 14억 투입, 도시재생 자원화 주민공간·생태센터 등 전환

남원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을 다양한 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생활·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빈집 매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 주택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시민

총 14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활용 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철 계획이 수립된 관내 빈집을 매입한 후 거를 넘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정비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 동시에 실현하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 행된다. 현재까지 8동의 빈집을 매입 완료했으며, 이 중 2동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된 빈집은 △생태관광 방문자센 터,  $\triangle$ 공용주차장,  $\triangle$ 주민 쉼터,  $\triangle$ 복지

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Delta$ 빈집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Delta$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김명곤기자

특히, 4차례의 걸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완주군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발

심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이

부분"이라며, 실천하는 특위활동으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에 총력

임실군이 잔류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집 및 처리를 위해 12개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공동주택 10개소에 폐의약 품 수거함을 신규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다 쓴 농약 용기류는 영농폐기물 로 분류돼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입해 재활 용됐으나, 사용 이후 남은 폐농약이나 소량 의 폐농약 용기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환경 공단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논· 밭, 생활 주변에 버려지는 등 처리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번에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폐농약 수 거함은 두 개의 함으로 구성돼 있으며, 폐 농약이 남아 있는 농약병째 버리는 수거함 과 빈 농약 용기 수거함으로 구분해 배출하 면 된다.

또한, 폐농약과 함께 군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도 안전하 게 적정 처리하기 위해 눈에 잘 띄고 접근 성이 좋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폐의약 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복용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과 복용하지 않는 약물이 종량제봉투나 하수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쉽 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후 군은 폐의약품 배출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 후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부서별 대응 상황점검

무주군이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분주하 게 움직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대책 회의를 통해 올여름 기상 전망과 인명과 시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산사태 취 약지역과 급경사지 관리지역, 저수지 등 재 해우려 지역(919곳)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도 공유했다.

무주군은 공동주택 내 침수 방지 시설 설 치 현황 및 배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한 편, 군도 11호 선형개량공사장 외 46개 건 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현재 진행 중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주말에도 큰비 가 예보되는 등 벌써부터 여름철 자연 재 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난 피해를 되짚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방에 우선을 둬 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자"라고 강조 했다.

/무주=최의호

#### 장수군,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 무료 이동검진

장수군은 12일 산서면 관내 경로당 4개 소를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대한 결핵협회 전북지부가 협력해 이동형 검진 차량과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문진과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객담검사까지 추가로 실시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결핵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정기적 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이동검진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차 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결핵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 로, 평소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 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 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26일에도 번암면 어 르신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 진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고 결핵검진 관 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결핵관리실로 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 백운면, 첫 행복주택 완공

#### 총사업비 51억투입 12세대 규모 공공임대형 다가구주택 건립

진안군이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 유입 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한 '행 복주택'이 백운면에서 첫 결실을 맺었 다.

680-1)일원에서 행복주택 준공식을 개 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 하했다.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들어설 예정이다.

데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 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라 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백운면 행복주택은 도비 및 특교세 등 총사업비 약 51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다.

농촌유학 가족,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등 정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 군에 따르면 12일 백운면(백암리 업은 정주 인구 유입과 함께 공동체 회 복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백운면 이장단, 기관· 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복주택 건립은 단순한 주거 공 간을 넘어 백운면의 미래를 함께 설계 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고,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진안을 1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형 다가구주택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진안군은 이번 백운면 행복주 택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성수면 행복주택(12세대), 내년에는 마 령면 행복주택(18세대)의 준공을 앞두

군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정주 여건 진안군은 오는 7월 초 입주자 모집 공 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모 델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7월부터 '입영지원금' 지급

####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이 7월부터 '입영지원금'을 지 급한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입영지원 금(4. 17. 조례 제정)은 병역의 의무에 임하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은 입영일 기 터에서 하면 된다. 준 1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중 입영통지서(발급일

급된다.

신청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이후부 터 입영 전까지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에는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신분증과 입영통지서 등 관련 서류 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

황인홍 무주군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려 2025년 6월 1일 이후)를 받은 현역병과 는 무주군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이들의 건강한 행보를 기원하는 마음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1회 한)이 지 을 담았다"라며, "무주사랑상품권으 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 무주군은 6월 중 읍·면 행정복지센 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입영지원금 사 업 계획을 안내하고 군청 누리집을 비 롯한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안 전민방위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청춘 아지트리움·쉐어하우스 준공

청년센터 '월랑'도 개관

진안군은 12일 우화 도시재생사 일원에 조성됐다. 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청춘 아지 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준공식 과 함께 진안군 청년센터 '월랑'개관 식을 개최했다.

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군의회 의장, 군의원, 전용태 전북도의원, 이양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등 7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행사와 테이 프커팅 및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 우스'는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우화 도시재 생사업의 일환으로 진안읍 우화1길 7

총시업비 46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 면적 818㎡,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2월 착공해 지난 5월 준공을 마쳤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청춘 아지트 이날 오전 10시 열린 행사에는 전 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는 지역 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 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라며 "청 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지역의 자 산이라는 믿음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큰 희망을 심을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혁신 주니어보드 워크숍

## 임실N치즈축제 7색상 7품종 국화 수 놓는다

#### 심 민 군수, 재배현장 방문 "수관개화관리만전"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확대 개최되는 임실N치즈축제장을 화 려하게 장식할 천만송이 국화꽃 재배 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 민 군수가 재배 현장을 찾아 꼼꼼한 점검에 나섰

지난 11일 국화 정식 현장을 점검한 심 민 군수는 무더위 속에서 국화 생산 관리에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 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지난 4월 17일 현애 조형물 정 식에 이어 6월 10일 임실N치즈축제 경 관을 장식할 화분 국화 정식을 완료했 다.

올해 생산되는 국화는 노랑, 핑크, 빨이다. 강, 주황 등 7색상 7품종으로 총 85,100 주를 사각 화분 20,700개와 원형 화분 23,000개 총 43,700개의 화분에 식재했 다.

일 이상 지연된 만큼 고온 조건에서도 비교적 개화가 안정적이었던 품종을 집중 배치했다.

또한, 혼합 화분 비율을 전체의 24%



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기 존 4일이 아닌 5일간으로 확대 개최되 며, 한층 새롭고, 더 풍성하고, 차별화 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 글 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 용한 맛있는 디저트퐁뒤체험 △국가대 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벨기에 특히, 전년 이상 고온으로 개화가 10 부스 운영 등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고 국화 생산 및 전시에 거는 기대가 크 완성도 높게 준비하고, 특히 저지종 숙 다. 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 램을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까지 확대하고 2색 및 3색 화분 등 색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상을 다양화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수놓아, 유럽형 장미원과 함께 어우러 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져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감동의 향 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2025 임실N 이 외에도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 청정 임 실에서 자란 50개월 미만의 암소 한우 와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만든 엄마표 향토 먹거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된다.

군은 임실N치즈축제장뿐만 아니라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도 더 욱 다채롭고 화려한 국화를 전시해 천 만 관광객 유치라는 군 목표 달성에

심 민 군수는 "금년은 10월 초에 길 게는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있다"며"축 이에 더해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제 시작은 10월 8일부터지만 10월 3일 연휴 시작 전 국화 전시가 완료될 수 있 도록 수관 및 개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 국화꽃이 만개한 임실에서 만나기 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주니어보드-장수군, 혁신 문화 교류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 5일 장수 해 왔던 과제와 성과들을 소개하며 청 군 주니어보드와 공동으로 혁신 문화 년 공직자가 제시하는 혁신 행정의 긍 교류를 위한 '수니어보드 합농 워크숍' 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했다.

보드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교류의 장 으로, 서로의 운영 노하우는 물론 다양 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 문화 공 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꿀팁 모음집, 과 서무의 모든 것 발간 등 그동안 추진

성석인 효과들 공유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과 장수군 청 이번 행사는 임실군과 장수군 주니어 년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 자치 단체 문화를 공유하고 행정 혁신을 같 이 고민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니어보드 활동이 활기찬 조직 문화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 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대전 효안과의원, 업무협약

눈 질환 예방·복지 증진

무주군은 지난 12일 무주군청 3층 군수실에서 대전 효안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 추진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 군수와 이효 효안과의원 대표 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해 실 10병상을 갖추고 전문의 5명이 운 의미를 더했다.

무주 군민의 건강 증진과 회복에 힘 쓰기로 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앞 및 진료를 하고 있다. 으로 △진료·입원·검사·재활 등에 협

조하고, △의료시설 이용, △의료정보 및 기술 교류, 교육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이 군 민 안질환 예방 및 복지 증진에 기여 군민 눈 질환 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전 서구에 위치한 효안과의원은 4 영하는 안과전문의원으로 시력교정 술, 드림렌즈, 안성형 등에 관한 검사

> > /무주=최의호

## 장수군,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전파 훈련

####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재난대응체계구축

장수군은 12일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황전파 훈련 재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을 실시했다.

로 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간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 각 기관별 대응상황을 보고하는 방식 다.

이 날 훈련에는 장수군을 비롯해 장 수소방서, 장수경찰서, 장수의료원, 전파와 유관기관 간의 대응 협력이 피 7733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번 훈련은 새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로 인한 산사태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 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여름철 집중 으며,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를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 적용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으로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훈련은 여름철 극한호우 및 태풍으 활용한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자동차세 8억3,700만원 부과

세로 총 8,077건, 8억3,7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상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단, 경차 및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액(지방교 가능하다. 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장수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 량이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대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은 행 CD/ATM기(카드·통장 납부), 위택 스(wetax)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ARS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장수=최진수 기자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 익산 영등2동 부녀회,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익산시 영등2동은 부녀회(회장 홍점순)가 행 정복지센터 쉼터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 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듯한 나 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관· 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쑥절편, 쑥가래, 쑥설기 등 올봄 손수 채취한 쑥으로 만든 떡을 비롯해 국산 들기름, 참기름, 감자 등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북전주농협, 관내 경로당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 실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농협파트너스 (대표이사 이범석)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4일간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에어컨청 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전주 농협 관내 조합원 등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보 호와 쾌적한 마을 공동체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약 1,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총 60여 곳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지원하며, 특히 농 협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해 농협 브랜드 가 치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김제시 용지면 사회단체, 화재 피해 가구에 680만원 전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사 회단체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68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1일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현재 임시 거 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어울림봉사회, 남 녀의용소방대 등 4개의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총 68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문승우 도의장, 국제라이온스협회 감사장 수상

#### 지역봉사실천공로 "공감행정적극펼쳐나갈것"

의장이 12일 국제라이온스협회로 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 사장 수여 배경을 밝혔다. 여 받았다.

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국제라이온 스협회 한국연합회 정성길 이사장 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이 참석해 파브리시오 올리베이라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회장을 대신하여 감사장을 수

여했다.

파브리시오 올리베이 국제회장 은 "문승우 의장은 전북 의정을 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 괄하는 의장으로서 활발한 대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

문승우 도의장은 "감사장에 수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의장실에 상에 의정활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 /정재근 기자



## 군산 수송동 천사누리지사협, '희망2025나눔캠페인' 수상

#### 이웃돕기 부문 공로 인정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는 관 내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2025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 식'에서 이웃돕기 부문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상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

원 △꾸준한 민·관 협력 활동 지속 을 통해 나눔 문화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 공이 됐다.

한종현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받 은 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 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곽은하 수송동장도 "지역 주민들 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 사하다"며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초산동 주민센터 견학한 꼬마 시민들

정읍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 그램, 민원 안내 등 주민센터의 다 치원생들이 초산동 주민센터를 찾 양한 역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 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직접 체험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혔다.

유치원생 15명은 지난 11일 주민 받아들였다. 센터를 찾아 초산동의 역사와 특 성, 주민센터가 하는 일을 배우는 번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중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주민센터 가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설명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다.

직원들은 복지서비스, 문화 프로

춰 소개했다. 이에 유치원생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박순배 동장은 "어린이들이 이 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완주군 전몰군경유족회, 보훈가족에 성금 기탁

회 완주군지회장이 지난 11일 완 주군을 찾아 저소득 보훈가족을 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기부로 위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

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 다. 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저소 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 금을 전달했다.

유옥희 회장은 "보훈의 달을 맞 다"고 전했다. 아 주변에 어려운 보훈가족이 많

유옥희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 많은 분들이 보훈가족을 되돌아보 유옥희 회장은 보훈의 달을 맞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

>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도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 여해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

> > /완주=김명곤기자



#### 카페 '인디비주얼', 장수군에 500만원 상당 아동의류 기탁

임실군 운암면에서 카페 '인디비주얼'을 운 영하는 박춘열 대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아동용 상의 500벌을 장수군 에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인디비주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 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탁은 평소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 천해온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사 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춘향장학재단, 지리산한지 등 지역 인재육성 기탁금 잇다라

춘향장학재단은 12일, 지역 인재양성 및 교 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리산한지(대표 김동 훈)로부터 1천만원, 남원시 골프협회(회장 김 영규)로부터 2백만원 총 1,200만원의 기탁금 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리산한지(대표 김동훈)는 지난 12일 "지 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조금이라도 보 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춘향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장학생 선발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정읍 산내면 부녀회,

독거노인에 밑반찬 전달

정읍시 산내면새마을부녀회(회장 전은숙) 가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손수 만들어 전달하며 따뜻 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산내면 부녀회는 지난 11일 홀로 지내는 어 르신 30세대를 대상으로 김치와 돼지불고기 등 밑반찬을 준비해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 행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 생활을 지원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식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 식중독 예방 6대 수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음식은 꼭 익혀드세요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혀 드세요. 물도 가급적이면 끓여먹어요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세척 및 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구분해서 사용하기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시다. 〈一事一言〉



#### K-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라는 단상(1)

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정책선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쉬움이 컸다. 활 발한 정책토론이 없어서 크게 부 각되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정책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K-이니셔티브' 비전이었 다. 이 비전은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한국과 세계 관계 전반으 로 확장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 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

K-이니셔티브는 최근 들어 우 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연스럽 게 정착된 선진국 정체성을 대내 외 정책에 반영하려는 구상이다. 서구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형 국가에서 자기주도성에 기초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 고자 한다. 십년 전만 해도 이런 정책을 제기하면 시쳇말로 '국뽕' 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 런데 이제는 누구나 수긍하고 국 민 모두가 기대하는 국가 비전이 되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한류 의 위대한 성취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K-이니셔티브 구상을 제대로 구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상이 나올 수 있었던 영감의 원천인 한류의 성 공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부터 한국과 세계의 관계에서 한 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 해야 한다.

K-컬처의 세계적 유행은 한국

역사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 계사적으로도 특별한 의의가 있 다. 19세기 이래 세계사는 서구적 근대성이 전 세계를 압도했다. 따 라서 근대 이후 문화의 전파 양상 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세계인이 수용하 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하나의 패 턴이었다. 그런데 한류의 확산은 이를 거슬러 문화 흐름의 방향을 역전시킨 것이다. 20세기 초 식민 지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여 전히 문화수입국에 머물러 있지 만, 한국은 유일하게 문화수출국 으로 변모했다. 이는 한국이 이룬 경제적, 정치적 성취보다 더 값지 고 특별한 것이다.

한국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 루었는지, 또 어떻게 정치 민주화 를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 이 어떻게 문화강국이 되었는지 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비교 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연 구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결 정적인 이유는 경제나 정치발전 영역은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이 론으로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 비해, 문화적 성취는 이를 적용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한 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류 의 성공 원인에 대해 추론한 내용 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류의 성공 원인에 대한 해석

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한데, 가 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독특한 매력과 세계적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이론의 설명력이 강하다. 하나는 문화혼종성(cultural hybridity)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 근접성(transnational proximity) 이론이다. 혼종문화의 대표적 사 례는 K-Pop이다. 한 연구에 따 르면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대중음악 은 흑인음악이 백인문화와 한차 례 혼종성을 일으킨 후 창출된 것 인데, 이것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한국적 정서와 다시 한번 뒤섞이 면서 K-Pop이라는 새로운 형식 의 혼종문화를 탄생시켰다는 것 이다.(크리스털 앤더슨 저, 〈케이 팝은 흑인음악이다〉 눌민, 2022)

또 다른 이론인 초국가적 근접 성 이론에 입각한 설명은 한국 대 중문화 콘텐츠가 개별 지역과 민 족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세 계인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만 한 주제 의식을 잘 반영한다는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과잉경쟁 사회에 서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피로감 을 잘 드러낸 영화 '기생충'과 드 라마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같 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류의 성공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 고 상호보완적이다. 콘텐츠 측면 에서 볼 때, 한류의 성공 요인은 '문화혼종성'을 통해 기존의 서구

주류문화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 움을 담아내면서, 또한 글로벌 수 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보 편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초국가 적 근접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이 두 이론 중 초국가적 근접 성 이론의 경우 한국 민족의 특수 성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더 주 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한류의 성공과 관련하여 한 국민족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개념은 문화혼종 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 및 한국문화의 이런 특 성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족성으로부터 연 유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한 반도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중간 지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주로 북방 유목민 족과 중화문명 사이에서,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했 다. 이런 중간지대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 국가는 역사적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정체 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전북자치도가 '창업하기 좋은 전북'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주 도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 는 등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 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창업생태계 전반을 개편하고 혁신의 순 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북도가 창업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민간 주도'다. 특히 유 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정부 R&D 자 금과 연계해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 그램을 도입하면서 민간 투자사의 선제 적 판단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매우 타당하다. 이미 6개 팁스 운영사가 선정되었고 민 간투자 3억원 이상을 유치한 유망 기업 60곳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창 업 지원의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 할수있다.

공간 인프라 확충 역시 주목할 대목이 다. 전주한옥마을의 '키움공간' 개소에 이어, 익산역 인근에도 식품 바이오 특 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창업은 좋 은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험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물리 적·심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북의 이 러한 접근은 창업가들의 체류 유인과 생 태계 집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전북도는 창업기업의 성 장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에서 도약기 기 업까지 381개사를 대상으로 191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시군 청년혁신가 발 굴, 창업 패키지 운영, 이차보전 금융지 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다. 9개 펀드를 통해 2천69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 북을 운용 거점으로 한 투자사 확보와 공동 기술사업화 협약까지 추진하고 있 다.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외국인 창업 비자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도 차별 화된 지점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유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전북이 글로 벌 창업 도시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을 현 실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창업생태계는 단기간 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실패를 허용하고 재도전을 장려하는 문 화,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 역 량,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내 소비와 판로까 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필요하 다. 전북이 이제 시작한 이 복합적인 퍼 즐 맞추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보여주는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하다. 과거 제조 기반 산업의 쇠퇴로 침체의 그림자가 드 리웠던 이 땅에, 혁신 창업이라는 씨앗 을 심고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제 남 은 과제는 이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하 고,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 친화적인 문 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창업하기 좋은 전북, 그 비전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빈 틈없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오늘의시

#### 낙타 / 신경림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 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 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가겠다 대답하리라.

'원격지', '산읍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 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 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 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부설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문서류, 민간문서

-지정일 - 1992년 6월 20일

-시대 - 미상

-소재지 -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236-180



대표전화 282-9601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저주지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장지국 010-2258-3734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3672-0308

편집국 팩스 283-8800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읍의 *맛과 품과 경*을 담았다"

# 시민이 선택한 정읍다움 '정읍보물 369'



"정읍에는 참 좋은 것이 많은데, 하 나로 꿰어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번 '정읍보물 369'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의 진짜 매 वंश धंस्रोय, गर्न मंसार एस्न 정읍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의미 있 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윤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

시민 김모씨, 시민 제안 광모 참여자

정읍시가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프 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로젝트, '정읍보물 369' 브랜드를 최종 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매력들이 조화 확정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예고했다.

최근 정읍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통 물 369'는 정읍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된다. 정수를 담아내며, 향후 정읍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 가는여정

안 공모에는 무려 1500여 건에 달하는 읍 막걸리 (지역 쌀로 빚은 깊고 구수한 가 생각하는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자 자랑하는 전통주) △정읍 자생차 (정읍 택한 '정읍보물 369'에 대한 자부심은 자 랑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정읍보 의 자연을 담은 은은한 향의 차)가 이름 물찾기'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군을 압축했다. 이후, 선정 과정의 공정 으로 기대된다. 심 속에서 2차 후보군으로 '6미, 10품, 15 진 구절초의 향연) △정읍사와 달빛사랑

#### 시민 1500여 건 제안 6400여 명 선호도 조사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경'이 추려졌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 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읍을 대표할 '3미·6

####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를 품은 '3미·6품·9경'

한 '정읍보물 369'는 과연 무엇일까? 면 면을 살펴보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자 거점으로 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롭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읍을 대표하는 3미(味) 에는 △ 해 발표된 정읍보물은 단순한 상징물 지 정읍 쌍화차 (한약재의 깊은 향과 건강 정을 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까지 생각하는 전통차) △정읍 한우 (청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결합된 결 정 자연에서 자란 우수한 품질과 풍부한 과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정읍 육즙) △내장산 산채비빔밥 (내장산의 의 맛(3미·味), 정읍의 특산품(6품·品), 맑은 정기를 품은 신선한 산채의 향연) 정읍의 명소(9경·景)'로 구성된 '정읍보 이 선정돼 정읍의 미식 문화를 이끌게

다음으로 정읍의 풍요로운 땅과 정성 이 빚어낸 6품(品) 은 △정읍 귀리 (세계 적인 슈퍼푸드로 건강 가치 인정) △정 **뜨거운시민참여, '정읍의보물'을 찾아** 읍 씨 없는 수박 (높은 당도와 편리함으 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로 여름철 인기) △정읍지황 (우수한 효 을 올렸다. 이 특산품들은 정읍의 청정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1차 자연과 농민들의 땀이 결실을 맺은 것으 심사를 거쳐 '10미, 18품, 21경'의 후보 로, 정읍의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

한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경쟁과 관 초지방정원 (가을철 소나무 숲과 어우러

숲 (백제가요 정읍사의 배경지, 아름다 운 야경 명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장) △무성 서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시대 성리학의 요람) △용산호(내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시민 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다양한 여가 활 품・9경'이 그 영예로운 이름을 올리게 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 △피 향정 (호남 제일의 정자로 불리며 연꽃 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월영습지와 솔티숲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간직한 힐링 및 생태체험 명소) △김명관고택 그렇다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선정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아름다움을 간직 한 문화재)이 선정돼 정읍 관광의 핵심

## '정읍보물 369', 정읍의 미래를 디자인

시는 이번에 확정된 '정읍보물 369'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읍의 매력을 입체 적으로 구성하고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 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증 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시는 향후 '정읍보물 369'를 활용한 다 양한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시

특히, 이번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시민 제 등의 전통 한약재이자 특화 작물) △정 여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동력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각자 서민의 술) △청명주(맑고 깨끗한 맛을 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선 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는 곧 정읍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 어질 수 있다.

시는 '정읍보물 369'를 통해 '정읍다움' 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 위의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9경(景) 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염 했다. 이 조사에는 총 6400여명이 참여 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사계절 빼어 원과 참여로 탄생한 '정읍보물 369'가 정 해 정읍보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또 난 풍광, 특히 가을 단풍의 절정) △구절 읍의 눈부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읍=김정인 기자

